

		<h1>보 도 자 료</h1>		
		배 포 일 2018. 9. 13.(목) 총 7매(본문 4, 참고 3)		
담당 부서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 과장 공두표, 사무관 전찬수, 주무관 김기만 • ☎ (044)200-5750, 5753, 5754	
	부산항만공사		• 단장 강부원, 실장 노준호 • ☎ (051)999-3008, 3100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14:00 이후부터 보도 가능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전면 개편

- ①터미널 대형화, ②운영사 11개사(건설중 3개 포함) → 6(~7)개사로 통합, ③자성대 터미널 2021년까지 운영, ④근로자 고용 보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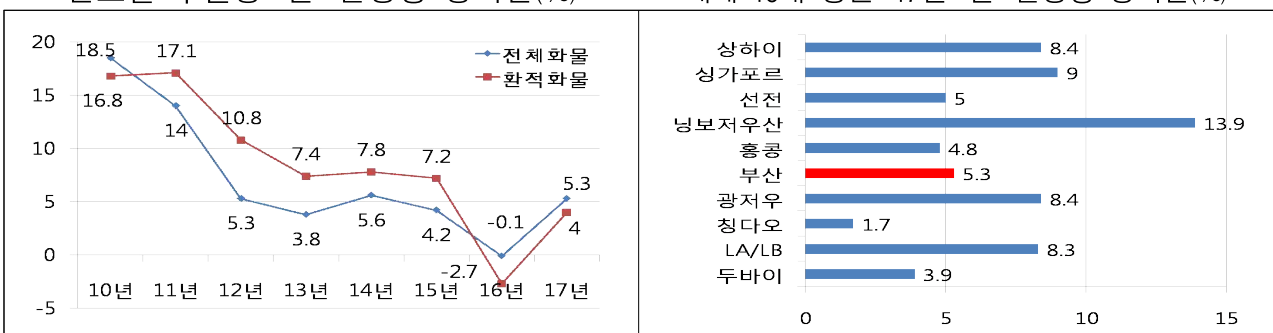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항은 1978년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한 이래,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1위 싱가포르)의 환적항만으로 성장하였다. 작년에는 한진해운 파산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000만TEU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 ('17년 순위/ 물동량 기준) 1위 상하이, 2위 싱가포르, 3위 선전, 4위 닝보-저우산, 5위 홍콩

그러나, 그간 부산항 성장을 견인해 온 환적물동량 증가율이 2011년 1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항만의 견제를 받고 있어, 세계 6위 항만의 위상을 이어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연도별 부산항 '컨' 물동량 증가율(%) > < 세계 10대 항만 '17년 '컨' 물동량 증가율(%) >



또한, 항만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해운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얼라이언스가 4개에서 3개로 재편되었으며, 상위 선사 중심의 인수합병(M&A)으로 상위 20개사가 11개사로 통합되었다.

경쟁 항만인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주요항만은 비교적 대형화되어 있는 반면, 부산항은 소규모 터미널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부산항에는 현재 8개의 터미널 운영사(북항 3개, 신항 5개)가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신항 2-4단계, 2-5단계, 2-6단계가 개별 운영되면 총 11개 운영사 체계가 된다. 터미널당 선석 수도 4.1개로 세계 주요항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상황이다.

< 주요 항만 터미널 비교 >

구 분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부 산*
선석 수	48	62	28	46
터미널 수	7	8	3	11
터미널당 선석 수	6.8	7.7	9.3	4.1

* 부산항은 건설중인 신항 2-4단계, 2-5단계, 2-6단계 개장 및 개별 운영 시

다수의 소규모 터미널 체계는 부산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항을 기항하고 있는 얼라이언스 규모에 비해 터미널이 작아, 얼라이언스 물량이 분산되고 타부두 환적 화물의 육상 운송을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또한, 선박이 바다에서 대기하는 체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부산항 신항의 경우, 5개 터미널 중 4개(이 중 1개 터미널은 현대상선이 공동운영권 확보)를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항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사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외국자본 잠식이 심화될 경우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국내 항만산업에 재투자되지 않아 항만산업 발전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터미널 운영사의 자율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다수 소형 터미널' 체계를 '대형 터미널'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11개의 터미널 운영사(신항 2-4, 2-5, 2-6단계 개장시)를 6개(또는 7개)로 통합하고, 터미널당 선석 수도 4.1개에서 7.6개(또는 6.5개)로 대폭 확대한다. 둘째, 터미널 재편 과정에서 국적 물류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 물류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항은 3개 터미널을 2개로 개편하고, 자성대 터미널의 재개발 착수시 부터는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을 부산항대교 바깥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신선대(씨제이대한통운부산 컨테이너터미널)와 감만 터미널 운영사(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를 통합한 데 이어, 이 운영사와 신감만 터미널 운영사(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를 2019년 6월까지 추가로 통합하여 한국해운연합(KSP : Korea Shipping Partnership, 장금상선 등), 하역사(동부익스프레스, CJ대한통운 등),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 운영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운영사는 신선대와 감만 지역 일부(4개 선석 중 3개)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며, 이 운영사에게는 신항 2-6단계(2개 선석, 2025년 개장 예정)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2년 개장 예정인 신항 서측 2-5단계(3개 선석) 운영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자성대 터미널은 2021년까지 컨테이너 물류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터미널 운영은 가급적 2019년 6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현재 운영사(한국허치슨터미널)가 계속해서 운영하기를 희망하지만, 세부 협의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이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자성대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사는 자성대 터미널 재개발 착수 시 신감만과 감만 지역 일부(4개 선석 중 1개)로 이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신항은 8개 터미널(2-4, 2-5, 2-6단계 포함)을 4개(또는 5개) 터미널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터미널 운영사의 동의를 전제되어야 하므로, 터미널 운영사 간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을 유도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측 터미널의 경우, 우선 2022년 개장 예정인 2-5단계 운영권을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 제공하되, 2-6단계 개장 시(2025년)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항 터미널 재편이 완료되면, 서측 터미널은 한국해운연합(KSP), 하역사,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국내기업 운영사가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신항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선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외 기업의 균형성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자성대 재개발 시 신감만·감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터미널 운영사 근로자는 이전한 터미널(신감만·감만 일부 지역)과 2022년 개장 예정인 신항 2-4단계·2-5단계 터미널 운영사 등으로, 신선대·감만·신감만 통합 운영사의 유휴 인력은 신항 2-4단계·2-5단계 등으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터미널 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터미널 대형화로 항만 효율성이 개선되고, 타부두 환적 비용 절감, 체선 감소 등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환적 물동량의 증가로 부산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터미널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터미널 재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와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참고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 배치도

1. 북 항

① 2018년 9월 현재 : 3개 운영사



* 현재 신선대·감만 9개 선석 중 3개 선석(신선대 1개, 감만 2개)은 미사용중

② 2019년 3분기 ~ 2021년말 : 2개 운영사



③ 자성대 재개발 착수 이후 (2022년 이후) : 2개 운영사



2. 신 항

① 2018년 9월 현재 : 8개 운영사 (건설중 3개 포함)



② 계 획 : 4~5개 운영사 (건설중 3개 포함)

